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December 2025 Issue | Vol. 85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미국 관세 완화 기대 속에 2026년 의류·섬유 성장을 2~5% 전망
—page 1
- IMF, 필리핀의 GDP 지원 정책 언급
—page 2
-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행 주요 원천 시장으로 부상
—page 3-4
- PIDS: ASEAN, 전략적 영향력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page 4-6
- MWSS 추정치: 2026년 수도 요금 인상 예상 —page 6
- 말라카냥과 BSP, 향후 2년 전망에 낙관적 —page 6-7
- SEC와 PCC, 기업 부문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 강화
—page 7

미국 관세 완화 기대 속에 2026년 의류·섬유 성장을 2~5% 전망

December 14,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의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업계가 신규 시장을 모색함에 따라 내년에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UTERS

필리핀 외국 바이어 협회(Foreign Buy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로버트 M. 영 회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선적을 앞당긴 덕분에 올해 수출 실적이 “놀랄 만큼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성명을 통해 “매출은 2024년 약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상호 관세 인하 및 면제 협상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도 일부 조정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 나라에 대해 했던 것처럼 19%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놓고 워싱턴과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관세가 아예 0%로 인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업계가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또 “ASEAN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FTA 체결 수가 가장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FTA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원자재 비용 상승을 상쇄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전력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노동고용부와도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해 달라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업계가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 FOB(본선 인도)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과 더 많은 FTA가 마련될 경우, 업계가 10~15년 전의 50억 달러 수출 규모로 2~4년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4년 안에 30억~50억 달러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필리핀에 섬유 공장이 설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는 원단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2/14/718660/garment-textile-growth-seen-at-2-5-in-2026-amid-us-tariff-concession-hopes/>

IMF, 필리핀의 GDP 지원 정책 언급

December 15, 2025 | Joan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은 필리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개혁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2025년과 그 이후의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해 11월 24일 종료된 필리핀에 대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이후 월요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이 수출과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1%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5.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였던 2025년 5.4%, 2026년 5.7%에서 각각 하향 조정된 수치다.

보고서는 강한 공공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 2024년 필리핀 경제가 5.7% 성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 관련 요인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5.4%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총고정자본형성(GFCF)의 약화와 일부 이상 홍수 방지 사업 문제, 민간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4%로 추가 둔화됐다.

IMF는 성장 전망 하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중기적으로 약 6%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IMF는 “단기 성장 전망의 위험은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장기화된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외 위험 요인을 지목했다.

또한 국내 요인으로는 “기후 충격이 더 빈번하고 강해짐에 따른 거시경제적 손실”을 언급했다.

IMF는 “긍정적 요인으로는 구조적·거버넌스 개혁의 가속화가 투자자 신뢰를 지원하고 재정 승수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기 재정전환 계획은 “재정 여력과 대외 균형을 강화하고 성장 친화적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또한 “우선순위 지출에서의 제약 필요성을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입·세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공공재정관리 개선과 지출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 투자관리 및 조달 강화 등 책임성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조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여러 이사들이 공식적인 재정규칙 내에 재정 목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평균 1.7%, 내년은 2.8%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벤드인 2~4%를 크게 밀돌았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IMF가 “성장 하방 위험이 높고 물가 기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어야 하며, 당국의 데이터 기반 접근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BSP 정책위원회(MB)는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해 역환매조건부(RRP) 금리를 4.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하루짜리 예치금과 대출금리는 각각 4%, 5% 수준이다.

통화당국은 이제 완화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신호를 보냈다.

IMF는 “이사들은 당국이 환율을 충격 흡수 역할로 계속 활용하고, 질서 없는 시장 상황에서는 일시적 개입만 할 것을 권고했다”며, “자본시장 심화와 통화정책 전달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행 주요 원천 시장으로 부상

December 15, 2025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6.2 million Filipinos traveled outside the country from January to October 2025. The Philippines has emerged among the key sources of tourists in Asia Pacific.

필리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주요 원천 시장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마데우스(Amadeus)와 UN 관광기구가 주최한 ‘Travel Insights 2025 및 Travel Trends 2026 in Asia Pacific’ 웨비나에서, ForwardKeys의 정보·마케팅 담당 이사 올리비에 폰티(Olivier Ponti)는 해당 지역이 “장거리 여행 수요와 아시아 내 견고한 수요가 혼합된 시장”이라며, 주요 원천 시장으로 인도, 한국, 호주,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영국, 필리핀, 중국을 꼽았다.

동남아시아 여행과 관련해서는, 필리핀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여행객을 보내는 원천 시장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본토가 이었다.

퐁티 이사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실제 여행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지역 내 여행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여행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동남아시아 여행 관련 검색 순위에서도, 폰티 이사는 “필리핀은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해외여행 모멘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ForwardKeys는 전 세계 여행업계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정보기술 회사 아마데우스(Amadeus)의 자회사다.

620만 필리핀인, 일·여가 목적으로 해외 여행

필리핀 관광부(DOT) 자료도 폰티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625만 명이 필리핀을 떠나 해외로 여행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1.61%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해외 여행객 수는 같은 기간 필리핀을 방문한 477만 명의 입국 관광객 수를 넘어섰다.



ForwardKeys Director for Intelligence and Marketing of Olivier Ponti

Where do visitors come from? Reality vs. aspirations

Top origin markets searching for South-East Asia		
Origin market	Nov.23-Oct.24 ranking	Nov.24-Oct.25 ranking
China	1	1
Thailand	2	2
Rep. of Korea	3	3
Malaysia	5	4
United States	4	5
Indonesia	8	6
Japan	7	7
India	6	8
Philippines	10	9
Australia	9	10

Top origin markets travelling to South-East Asia		
Origin market	Nov.23-Oct.24 ranking	Nov.24-Oct.25 ranking
Rep. of Korea	1	1
Philippines	3	2
Thailand	2	3
Malaysia	4	4
United States	5	5
India	6	6
Indonesia	11	7
Taiwan (pr. of China)	7	8
China	8	9
Japan	10	10

10개월 동안 해외로 떠난 여행객 중 약 616만 명이 필리핀 국적자였으며, 외국인은 90,283명이었다. 이 데이터는 업무 및 여가 목적의 여행을 포함한다.

필리핀 해외 출국 여행객 상위 10개 목적지는 다음과 같다. 홍콩 766,869명, 일본 661,296명, 싱가포르 600,723명, 대만 454,487명, 태국 438,362명, 아랍에미리트 414,517명, 사우디아라비아 368,017명, 베트남 308,679명, 미국 298,239명, 한국 190,435명이다. 동남아시아 내 다른 주요 목적지로는 말레이시아 148,409명, 인도네시아 95,305명이 포함된다.

한편, 폰티 이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숙박업과 항공 여행 부문에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객실 점유율이 높으며, 점유율이 70%까지 성장했지만 평균 일일 요금(ADR)은 낮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의 휴가는 매우 인기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여행 주요 원천 시장으로 부상

[Cont. from page 3]

회복력 있는 관광지

蛩티 이사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높은 객실 점유율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항공 교통량이 5.8% 성장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호텔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관광객 프로필에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는 여행 수요가 급증해 연말 축제 시즌 동안 여행 업계 종사자들이 매우 바빠질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으로의 여행 수요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항공사의 증편으로 뒷받침되며 안정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여름 이후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월에서 3월로 계획된 항공편은 현재 수준을 크게 웃돌아 장거리 항공 회복에 대한 항공사들의 강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평균 일일 요금(ADR) 폐탄은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프리미엄 목적지는 요금이 상승하는 반면, 다른 목적지는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되어 다양한 여행객층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24년 11월 1박 평균 260달러에서 2025년 4월 350달러로 상승했다가 10월 290달러로 낮아지는 등 변동성이 나타났다. 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2,9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태국은 ADR이 1박 150~200달러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蛩티 이사는 “중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원천 시장에서 강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이 다양한 출발지에서 수요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력이 높다”며, “즉, 2026년을 맞아 이 지역 관광 성장에 대해 신중히 낙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Image credits: [WTTC](#)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2/15/phl-emerges-as-top-source-market-for-aspac-travel/>

PIDS: ASEAN, 전략적 영향력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December 15, 2025 | Ricardo M. Austria | Manila Bulletin

필리핀 국영 정책연구기관인 필리핀개발연구소(PIDS)는 최근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 대신 전략적 영향력, 디지털 리더십, 지역 결속력을 활용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ASEAN은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최근 회원국인 동티모르 등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필리핀이 2026년 ASEAN 의장국을 맡아 말레이시아의 뒤를 잇는다고 발표했다.

마닐라 불레틴(MB)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의장국 하에서 ASEAN의 첫 공식 회의는 12월 10~11일 아클란주 보라카이 섬에서 열렸으며, 각국 정상들은 2026년 지역 경제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

PIDS의 ‘ASEAN의 부상: 글로벌 강국을 향하여(ASEAN’s Ascent: A Global Power in the Making)’라는 12월 10일자 토론회에서, 연구 감독관 마크 앤서니 A. 바라알(Mark Anthony A. Barral)과 선임연구위원 프랜시스 마크 A. 퀴움바(Francis Mark A. Quimba)는 국제 체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단순한 물적 역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PIDS는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지역이 글로벌 리더로서 행동할 의지와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ASEAN의 경우, 이는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이익, 전략적 내리티브,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ASEAN의 합의 구축, 불간섭 원칙, 지역 중심성에 반영된 길이라고 PIDS는 설명했다.

“서구식이나 전통적 모델을 모방하기보다는, ASEAN은 기능적 중심성(functional centrality)과 소집적 리더십(convening leadership)을 통해 인정받고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5]



President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and First Lady Liza Araneta-Marcos lead the official launch of the Philippines' Chairship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026 at the Foro de Intramuros in Manila on Nov. 14, 2025. The event unveiled the ASEAN Philippines 2026 logo in the shape of a balangay, featuring the standard ASEAN emblem that reflects the unity and stability of Member States, along with the 2026 commemorative stamp. (Noel Pabalate/PPA Pool)

PIDS: ASEAN, 전략적 영향력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Cont. from page 4]

PIDS는 ASEAN이 “다극성(polarity)의 다차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대 글로벌 질서는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영향력은 기술적 리더십, 규범 설정, 디지털·환경·지식 시스템의 통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DS는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규제력과 규범 설정 능력으로 글로벌 축(pole)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ASEAN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무역 기준, 환경 정책,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등에서 역할을 강화할 경우, 특히 주요 강대국의 참여를 넘어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능적 영향력 축(functional pole)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PIDS 보고서는 “다극성은 관계적·정치적 속성을 가지며, 하나의 축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식별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비록 완전한 다극 축 지위는 아닐지라도, ASEAN은 내부 경제 구조와 외부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ASEAN 내 경제 연계 강화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면 원산지 규정과 공급망 기준을 조화시켜 무역 통합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PIDS는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간 디지털 ID 및 전자상거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면 국경 간 거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공동 해상 순찰 확대와 ASEAN 재난인도지원조정센터(AHA Center)를 통한 재난 대응 조정 강화로 집단적 역량과 회복력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PIDS 보고서는 지역 내 인프라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ASEAN 연결성 2025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을 위한 전략적 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외적으로는 ASEAN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양화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제도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IDS는 또한 ASEAN의 정치적 신뢰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성을 거버넌스 구조에 맞추어 외부에 전달되는 지역 리더십 메시지와 정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동료 검토(peer review), 지역 성과표(scorecard), **ASEAN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의 권한 강화 등 민주적 규범과 선진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ASEAN의 불간섭 원칙(‘ASEAN Way’)은 지역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축으로 인식되려면 보다 원칙 기반의 실용주의(principled pragmatism)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PIDS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 봉사단, ASEAN 대학 네트워크(AUN)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사람 간 연결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ASEAN이 EU가 ‘유럽 가치’를 해외에서 홍보하듯 공유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홍보한다면, 강력한 지역 정체성이 ASEAN의 글로벌 인지도와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ASEAN 주도의 안보 협력 강화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동 해상 순찰, 조기경보 시스템, 남중국해와 미얀마 등 분쟁 지역의 갈등 중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식량,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회복력을 구축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아프리카연합(AU), 라틴아메리카 등 비전통적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화하여 ASEAN이 지역적 거점이자 글로벌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PIDS 보고서는 다차원적 다극성 모델(multidimensional model of polarity)을 통해 ASEAN의 글로벌 축 부상은 경제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소집적 영향력(convening influence), 문화적 영향력, 지역 외교력과 같은 ASEAN의 독특한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Cont. page 6]

PIDS: ASEAN, 전략적 영향력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Cont. from page 5]

보고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적 집행력 강화, 공유 규범 확립, 보다 효과적인 지역 메커니즘을 통해 내부 결속을 심화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적 서사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문화·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PIDS는 ASEAN이 전략적 자율성을 함양하고, 주요 강대국 간 경쟁을 개방적 다각 참여 전략을 통해 조율함으로써 지역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ASEAN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전통적 강대국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 협력, 집단적 회복력에 기반한 독자적 동남아시아형 영향력을 개발하는 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b.com.ph/2025/12/15/asean-can-rise-as-global-power-through-strategic-influencepids>

MWSS 추정치: 2026년 수도 요금 인상 예상

December 15, 2025 | Emmanuel John B. Abris | Philippine Daily Inquirer



A barangay public safety officer checks leaks on pipes and water meters. Water bills are set to rise in 2026 under MWSS estimates
—FILE PHOTO

수도 소비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월별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수도·하수도 관리기관인 MWSS(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가 월요일 브리핑에서 발표한 신규 요금 영향 추정치에 따른 것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월 10 m^3 이하를 사용하는 일반 요금 대상 마닐라 워터(Manila Water) 고객은 월별 요금이 29.86페소 인상될 예정이며, 2025년 4분기 253.85페소에서 2026년 1분기에는 약 283.71페소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10 m^3 이하를 사용하는 생계형(lifeline) 사용자들의 경우, 월별 요금은 4.24페소 올라 91.40페소에서 95.64페소가 될 전망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지며, 월 20 m^3 소비자는 월 66.25페소, 30 m^3 소비자는 월 135.22페소 추가 인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MWSS는 추정했다.

한편, MWSS에 따르면 메이닐라드(Maynilad) 고객 중 월 10 m^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월별 수도 요금은 5.06페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규제 절차를 거치는 2026년도 연간 수도 요금 추정치의 일부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4459/water-bills-to-rise-in-2026-under-mwss-estimates>

말라카낭과 BSP, 향후 2년 전망에 낙관적

December 16, 2025 | Samuel P. Medenilla | BusinessMirror

지난주 필리핀 폐소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카낭은 향후 2년간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코 센트랄 양 필리피나스(BSP)는 지난주 경제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폐소 가치가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인 59.22페소로 하락한 상황을 논의하며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BSP는 외환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폐소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클레어 카스트로(Claire Castro)는 월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BSP가 밝힌 입장은 인용하며, “방코 센트랄 양 필리피나스는 환율을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튼튼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7]

말라카낭과 BSP, 향후 2년 전망에 낙관적

[Cont. from page 6]

경제 관리들과 관련해, 카스트로 대변인은 BSP가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2~4% 목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들은 규제와 투자 절차상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카스트로는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11월 인플레이션은 전월 1.7%에서 1.5%로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BSP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로 둔화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 했다. 이는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가 설정한 5.5~6.5% 경제 성장 목표를 밑도는 수치이다.

또한 카스트로는 이달 초 랄프 G. 렉토(Ralph G. Recto) 집행서기가 발표한 내용을 재언급하며, 마르코스 행정부가 곧 민간 부문, 특히 농업 분야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투자 기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트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캠페인도 필리핀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2/16/palace-bsp-confident-of-rosy-2-year-outlook/>

SEC와 PCC, 기업 부문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 강화

December 15, 2025 | Joa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공정거래위원회(PC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들이 국내 기업 부문의 투명성, 청렴성,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월요일 데이터 공유 협정(DSA)을 체결했다.

PCC 의장 마이클 아기날도(Michael Aguinaldo)와 SEC 의장 프란시스코 린(Francisco Lim)은 DSA에 서명했으며, PC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정을 통해 “PCC가 합병, 인수 및 필리핀 경쟁법에 따른 반경쟁 행위를 조사하는 임무와 관련된 SEC 소유의 기업 정보에 보다 간소화된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orwardKeys Director for Intelligence and Marketing of Olivier Ponti

“이번 협정은 경쟁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지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아기날도(PCC 의장)는 말했다. “SEC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시장이 투명하고 경쟁적이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유익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PCC에 따르면, 이번 DSA에 따라 “SEC는 요청받은 기업 데이터를 3영업일 내에 PCC에 제공하며, PCC는 해당 정보를 법적 권한 내에서만 사용하고 공유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담당자 또는 직원이 있을 경우 SEC에 통지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협정은 “데이터 유출 관리, 데이터 보관, 개인정보 안전한 폐기 절차를 명시하여 책임성과 데이터 주체 권리 보호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5년간 유효한 이번 협정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우수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투명성과 협력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 전반에 걸친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PCC는 이번 DSA가 “2016년 체결된 PCC-SEC 양해각서(MOA)를 기반으로 하며, 현장, 온라인, 오프사이트를 포함한 SEC 기록 접근 등 데이터 공유를 위한 명확한 절차를 설정한다”고 밝히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에 따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두 기관 모두 엄격한 기밀 유지 조치를 시행하며, 준수를 감독할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지정하도록 요구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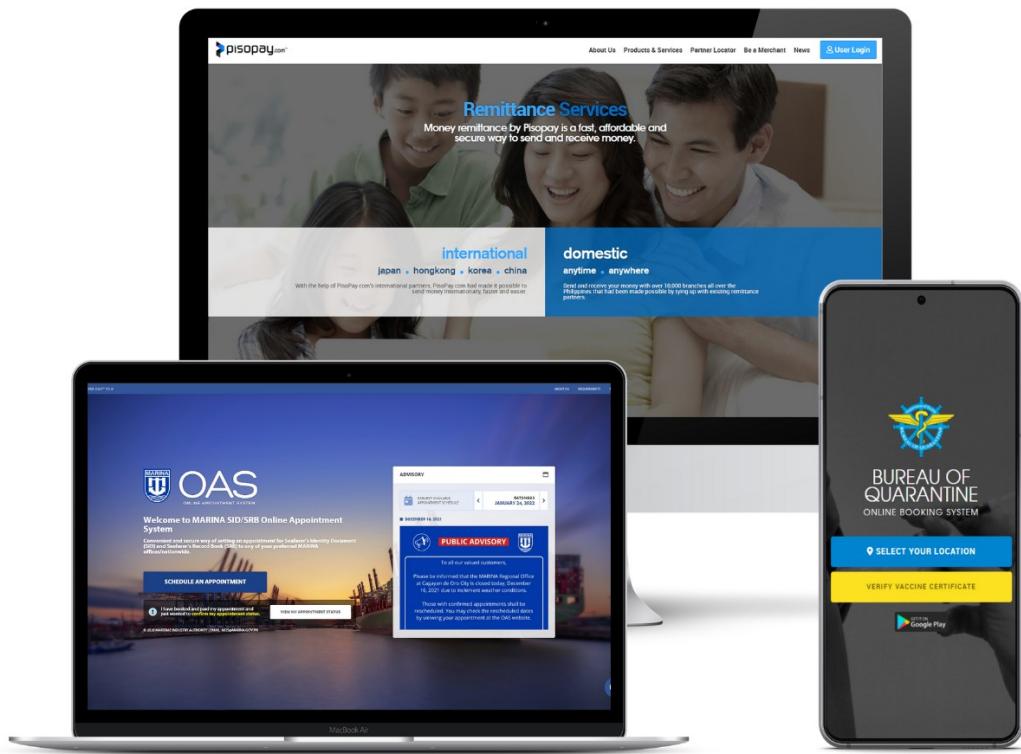
PCC에 따르면 SEC의 올리버 차토(Oliver Chato) 이사와 PCC 케네스 타나테(Kenneth Tanate) 집행이사가 이번 협정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지정되었다. (With a report from Joann Villanueva/PNA)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5271>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